

## 유아의 방과후 활동 경험과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After-School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Kindergarten Children :  
Relationships with Daily Stress

김 정 원\*

Kim, Jung Won

이 정 아\*\*

Lee, Jung Ah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relationships between the after-school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kindergarten children and their daily stress. The subjects were 380 kindergarten children; they were interviewed regarding the degree of their daily stress. Their mothers completed questionnaires on the children's extracurricular after-school activities.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showed that kindergarteners who participated in extracurricular after-school activities showed a higher degree of daily stress than children who did not. It was concluded that developmental appropriatenes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should be considered, and educational curricular and strategies to help children cope with daily stress due to excessive extracurricular activities should be prepared. Further research on this subject is recommended.

**Key Words** : 유치원아(kindergartener), 방과후 활동(after-school extracurricular activities), 일상적 스트레스(daily stress)

※ 접수 2002년 8월 31일, 채택 2002년 10월 15일

\* 한국성서대학교 인문사회학부 영유아보육학전공 전임강사, E-mail : jungwkim@bible.ac.kr

\*\* 전 부천 정동유치원 교사

## I. 서 론

현대 산업 사회로의 변화의 과정에서 출현한 과거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바빠진 부모의 생활 양상과 가족 구조 및 기능의 변화는 형식적인 교육의 하향화 현상과 온실효과에 대한 과도한 신념을 보편화시킴으로써 유아교육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자녀 양육 과정의 많은 부분에 직접 관여할 수 없게 된 부모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대체 양육의 형태로서, 그리고 사회 구성원인 부모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들 중의 하나로서 형식적인 교육의 하향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Hills, 1987; Katz, 1987) 이 과정에서 온실효과와 슈퍼아동 신드롬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바탕에는 매우 경쟁적이고 보다 많이 그리고 보다 빨리 학습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현대 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 1980년대부터 미국 중산층에 만연되기 시작한 슈퍼아동 신드롬은(Elkind, 1987; WuDunn, 1996) 자녀의 학문적 성취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는 부모들로 하여금 어린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빠른 학습 환경을 제공하게 하였고(김정숙, 1999; Collins, 1985) 특히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특유의 비상한 교육열과 맞물려 과도한 조기 교육의 현상으로 걸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 결과 유아들은 유아기에 당연히 누려야 할 그들의 삶에 의미 있는 경험에서 차단된 채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방과 후 특별활동, 학원 교육 및 학습지 활동 등을 통하여 성인기를 대비해 필요한 기술 학습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김수영, 1995; 김효선, 2001; 오효선, 2001; 최영란, 2001).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특별 활동, 다양한 유형

의 사설 학원, 그리고 방대한 규모의 학습지 등을 통한 유아 대상 방과 후 활동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활동들이 유아의 발달적 적합성을 고려하여 검증된 바람직한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아의 발달에 적절한 교육의 실제란 연령적 적절성과 개인의 독특성을 의미하는 발달적 적합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만(김수영, 1995; Bredekamp, 1987), 대부분의 학습지나 학원교육 등의 방과 후 활동이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방과 후 활동의 대부분이 교사 지시적이고 고도로 구조화된 대그룹 시간, 기계적인 학습, 추상적인 필답식 활동, 정교한 기술을 직접 가르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교육의 실제라고 볼 수 있고 그럼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길홍표, 2002; 김수영, 1995; Bredekamp, 1987; Nurss, 1987). 인간 발달과정의 복잡함과 창의성을 가속화된 형식적 학습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이러한 부적절한 조기 방과 후 교육의 현상은 아동이 정상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교육적으로 충분한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교육의 목적에 위배되는 근시안적인 교육의 실제라고 볼 수 있다(Minuchin, 1987).

발달적으로 부적절한 이러한 형식적 기술 습득을 위한 학문적 활동들이 아동의 발달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업 수행에 대한 지나친 요구는 청소년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Jessor, Van Den Bos Vanderryn, Costa, & Turbin, 1995) 유치원아와 1, 3학년 아

동에게도 주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한다(Dickey & Henderson, 1989). 비현실적으로 높은 성취 기준을 설정하는 부모를 둔 아동은 무능력감을 경험함으로써 실패할 가능성이 많으며(Katz, 1987; Seligman, 1990), 즉각적인 학습의 결과와 학업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감독을 받은 아동은 낮은 수준의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을 가지고(Elkind, 1986; Metcalf & Gaier, 1987; Sigel, 1987), 부모에게 의존적이 됨으로써 성취를 위한 내재적 동기화에 실패하고 그럼으로써 학교에서의 성취도가 낮아진다(Eshilson, Wiley, Muehlbauer, & Dodder, 1986; Ginsburg & Bronstein, 1993; Santrock, 1988). 높은 압력을 주는 구조화된 취학 전 학습 환경에서 아동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성취 불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과(Elkind, 1987)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Carson, 1992) 과도한 조기 방과 후 교육의 부정적인 측면을 증명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하위 기술을 강조하는 접근법을 사용한 과도한 유아기 방과 후 교육의 현상은 유아의 심리적 안녕에 잠재적인 피해를 줌으로써 성취도 향상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Barbour, 1989; Burts, 1991).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학문적 성취에 대한 부모의 높은 기대수준으로 인하여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그 효과가 검증되어지지 않은 유아교육기관의 방과 후 특별활동, 학원교육과 가정에서의 학습지 교육 등에 유아들을 참여시킴으로써(김명순, 2002; 이기숙, 2002; 한유미, 1992) 유아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우려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예측할 수 있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지나칠 정도로 만연하고 있는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무시한 부적절한 유아기

방과 후 학습 활동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성공해야 한다는 압력,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압력, 생존해야 한다는 압력을 유아들에게 과도하게 부과하여 유아의 정신적, 신체적 복지에 해를 끼치게 됨으로써 유아들에게 대처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부과한다고 볼 수 있다(Elkind, 1986, 1998).

스트레스란 도전이나 요구에 대한 신체의 생리적 반응(Selye, 1976)으로 삶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다(Hale, 1998; Stanford & Yamamoto, 2001). 스트레스가 고조된 현대 사회에서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유아도 위협적인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유아기의 스트레스에 관심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 성인과 달리 유아들은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것을 오랜 시간 인내하는 힘이 부족하고 동시에 스트레스의 원인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적 기술과 언어적 발달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정은, 1992). 신의진(2002)에 의하면 유아기 초기부터 과잉 조기학습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유아의 스트레스 관련 조절을 담당하는 신경회로에 손상을 주고 면역 기능과 기억력 저하를 가져온다. 즉 유아기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뇌 발달에 문제를 일으켜 인지 및 언어 발달의 저하와 사회적 발달의 지체 등을 야기 시킴으로써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의 경우에도 유아기의 다양한 스트레스에 관련된 연구가 별로 없는 실정이고(Garmezy, 1988; Jaffe, 1997), 특히 유아들의 방과 후 활동 경험과 스트레스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만약 두 가지 변인간에 관계가 있다면 방과 후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아의 방과 후 활동 경험과 스트레스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방과 후 교육이나 유아기 스트레스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과외교육 실태조사(정구혁, 1997; 최옥자, 1999; 허철, 1996)와 최근 들어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 방과 후 활동실태(김효선, 2001; 오효선, 2001; 최영란, 2001)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유아의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 연구들(김나림, 1996; 김수영, 1995; 이정은, 1992; 이현정, 1996; 한유미, 1992; 황미섭, 2000)에서도 여러 변인(가정, 또래, 양육 태도 등)들과 유아의 스트레스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특별히 유아의 방과 후 활동경험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홍은자(2001)의 연구 이외에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아의 방과 후 활동경험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최근의 유아기 조기 교육의 실태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 많은 수의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났고(이기숙, 2002), 학원에서 조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이 연구대상의 90% 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한유미, 1992)와, 1-4 가지 이상의 학습지를 하고 있는 유아들이 연구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김명순(2002)의 연구 결과 등을 볼 때 유아기 방과 후 교육의 유형을 방과 후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일반 학원 교육, 가정에서 하는 학습지 교육으로 나누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제까지 막연하게 추정되어 오던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정규 교육과정 이후의 방과 후 활동실태와 유아기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유아기 생활환경 마련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참고 자료를 제안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치원아의 방과 후 활동 경험의 양상(방과 후 유치원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일반 학원 교육, 가정에서 하는 학습지 교육)을 분석하여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유치원내 방과 후 교육 경험과 유아의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유아의 방과 후 학원 교육 경험과 유아의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유아의 가정에서의 학습지 교육 경험과 유아의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유치원 3곳과 경기도에 위치한 유치원 1곳, 인천시에

위치한 유치원 1곳의 만 3, 4, 5세 유아 380명과 그들의 어머니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 분		N(%)	계(%)
유아	연령	3세 52(13.7)	380(100.0)
		4세 137(36.1)	
		5세 191(50.3)	
성별	남	227(59.7)	380(100.0)
	여	153(40.3)	
어머니 직업	있다	122(32.1)	380(100.0)
	없다	258(67.9)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149(39.2)	380(100.0)
	2년제 대졸	60(15.8)	
	4년제 대졸 이상	171(45.0)	
월 평균 수입	200만원 미만	114(30.0)	380(100.0)
	200~300만원 미만	153(40.3)	
	300만원 이상	113(29.7)	

## 2. 연구 도구

### 1) 유치원 방과 후 활동경험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방과 후 활동 경험의 양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최영란(2001)의 「유치원아의 방과 후 과외교육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지를 본 연구 문제에 맞게 재구성한 후 유아교육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연구대상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유치원 방과 후 활동경험을 묻는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2) 유아의 스트레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는 염현경(1998)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한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측정도구(KPDSS)로서 유아용 검사지와 남아·여아용 그림카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그림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소요 시간은 한 명의 유아 당 약 15-20분 정도이다.

만 3세-6세용으로 제작된 그림카드의 뒷면에는 해당 그림의 내용을 나타내는 문항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어서 검사자는 유아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유아는 그림을 보면서 문항 내용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유아에게 그림을 보조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유아의 흥미와 집중을 유발시킬 수 있고, 특히 만 3세의 어린 유아일수록 말로만 제시하는 경우보다 그림을 함께 사용하면 질문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염현경, 1998). 검사지의 문항 구성은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이 5문항, '불안·좌절 경험함'이 12문항, '자존심 상함' 6문항으로 총 23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KPDSS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85였다. 각 담임교사들에 의하여 개별 면접을 통해 실시된 검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유아에게 1번부터 차례대로 그림자료를 보여주면서 질문을 한다. 그에 대해서 "있었다"라고 하면, 문항번호 왼쪽에 있는 밑줄 위에 '1'이라고 표기하고, "없었다"라고 대답하면 '0'으로 표기한다. "있었다"라고 표기한 경우, 그때의 기분이 어떠했는지 유아에게 물어보도록 한다.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표현을 했다면, "예"에 표기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아니오"에 표기한다. 계속해서 "예"를 표기한 경우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동그라미 그림 평정척도를 보여주고 고르게 한 후 결과에 따라 1점에서 3점의 점수를 주었다.

## 3. 연구 절차

### 1) 연구의 대상 선정 과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5곳의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4·5세 유

아들의 어머니 40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중 390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어 약 97.5%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질문지 배부시 유아용 문구를 제공하였고 유아를 통하여 질문지 회수에 관한 내용을 알렸으며 회수 후 응답하지 않은 어머니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응답을 부탁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를 검토하여 불명확한 자료 3부를 제외하고 387부의 질문지에 답한 어머니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유아용 검사지로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질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7명의 유아를 제외한 380명의 유아들과 그들의 어머니가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2) 예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서울시 양천구에 소재한 S유치원 만 3·4·5세 유아의 어머니 27명과 유아 2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3월 25일에서 3월 28일까지 실시되었다. 예비조사의 방법으로는 해당 유아의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모호한 문장이나 이해가 안 되는 문항 등이 있는 지를 점검 받고 소요시간 정도와 질문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어머니가 난해하게 생각하는 4문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질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8-10분 정도였다. 유아용 검사지는 그림카드와 문항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유아에게 직접 개별 질문하여 유아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3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유아용 검사지의 면접시간은 약 15-20분 정도였다.

## 3) 평정자 훈련

유아의 면접을 위하여 유아의 심리상태와 발달상태를 잘 알고 있는 담임교사를 평정자로 선정하여 연구자와 함께 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검사를 담당할 담임교사는 모두 4년제 대졸 학력으로 유아교사 경력이 3년 이상이었다. 평정자 훈련은 각 유치원마다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약 20분 정도씩 4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훈련에서는 연구도와 검사지의 유의사항에 대해 담임교사들에게 설명을 하였고, 두 번째는 그림카드와 평정카드를 제시하여 해당되는 항목과 비교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는 연구자가 두 차례 직접 유아를 면접하고 면접을 담당할 담임교사가 관찰을 하도록 하였다. 네 번째로는 담임교사가 직접 유아의 면접을 실시하도록 하고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면서 질문방법 등에서 수정할 점이나 보완점을 설명하였다.

## 4) 본 조사

본 조사는 2002년 4월 2일부터 2002년 4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을 거친 「유치원 방과 후 활동 실태 질문지」를 연구대상으로 정해진 유치원 5곳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허락을 얻은 후 각 유치원의 유아편으로 가정에 배부하였고 「유아용 스트레스 검사」는 만 3, 4, 5세 14학급의 담임교사들에게 부탁하여 연구자와 교사들이 20-40여명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각 유아당 15분 정도씩을 소요하여 검사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치원 방과 후 경험과 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chi^2$ (Chi-square) 검증과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유치원 방과 후 경험 양상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정도는 T 검증과 One-way ANOVA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 III. 연구의 결과

#### 1. 유치원 내 방과 후 교육의 실태와 유아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 1) 유치원 내 방과 후 교육의 실태

유치원내 방과 후 교육 참여 여부는 <표 2>와 같다. 방과 후 유치원 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유아가 57.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유아의 연령별로는 4세가 가장 많았고, 5세, 3세 순으로 나타나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27.29$ ,  $p<.001$ ). 어머니의 직업별로는 직업을 가진 어머니가 유치원 내 방과 후 교육을 더 많이 시켰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8.36$ ,  $p<.01$ ).

유치원 내 방과 후 교육 내용을 보면 미술을 배우고 있는 유아가 36.4%로 가장 많았고, 영어를 배우고 있는 유아(35.8%)도 비교적 많았다. 다음으로 피아노, 바이올린 등 음악 종류 6.7%, 수영, 태권도, 무용 등 체육 관련 내용 6.4%, 속셈 1.8%, 용변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방과 후 수업을 선택한 이유는 유아가 정규 수업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 보다 편리해서 선택한 이유가 5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프로그램이 좋아서 17.4%, 친구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서 9.6%, 가격이 저렴해서 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방과 후 유치원 내 교육 참여 여부

구분	예	아니오	계	$\chi^2$ (df)	p	
유아 연령	3세	13 (25.0)	39 (75.0)	52 (13.7)	27.29*** (2)	0.000
	4세	91 (66.4)	46 (33.6)	137 (36.1)		
	5세	114 (59.7)	77 (40.3)	191 (50.3)		
유아 성별	남	128 (56.4)	99 (43.6)	227 (59.7)	0.22 (1)	0.638
	여	90 (58.8)	63 (41.2)	153 (40.3)		
어머니 직업	있다	83 (68.0)	39 (32.0)	122 (32.1)	8.36** (1)	0.004
	없다	135 (52.3)	123 (47.7)	258 (67.9)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77 (51.7)	72 (48.3)	149 (39.2)	3.26 (2)	0.196
	2년제 졸	37 (61.7)	23 (38.3)	60 (15.8)		
	4년제 대졸 이상	104 (60.8)	67 (39.2)	171 (45.0)		
월 평균 수입	200만원 미만	62 (54.4)	52 (45.6)	114 (30.0)	3.07 (2)	0.216
	200~300 만원 미만	96 (62.7)	57 (37.3)	153 (40.3)		
	300만원 이상	60 (53.1)	53 (46.9)	113 (29.7)		
	계	218 (57.4)	162 (42.6)	380 (100.0)		

\*\*p<.01, \*\*\*p<.001

2) 유아의 유치원 내 방과 후 교육의 실태와 유아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유치원 내 방과 후 교육 여부에 따라 유아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적으로 스트레스의 정도는 유치원 내 방과 후 교육을 받은 유아(M=0.86)가 그렇지 않은 유아(M=0.74)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34, p<.05). 불안·좌절을 경험함으로써 나타나는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는 유치원 내 방과 후 교육을 받은 유아(M=0.90)가 그렇지 않은 유아(M=0.77)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28, p<.05). 유치원 내 방과 후 수업을 받은 유아의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으로써 나타나는 스트레스 정도와 자존심 상함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정도는 방과 후 수업을 받지 않은 유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3> 유치원 내 방과 후 교육 여부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구 분	예 (n=218)		아니오 (n=162)		전 체 (n=380)		t	p
	M	SD	M	SD	M	SD		
비난·공격성	1.11	0.74	0.98	0.68	1.05	0.71	1.73	0.085
불안·좌절	0.90	0.55	0.77	0.55	0.85	0.55	2.28*	0.023
자존심	0.59	0.62	0.48	0.52	0.54	0.58	1.76	0.080
전 체	0.86	0.52	0.74	0.48	0.81	0.51	2.34*	0.020

\*p<.05

미술 교육 여부에 따라 유아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비난·공격성 항목에서 미술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유아(M=1.22)의 스트레스가 받고 있는 유아(M=1.01)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t=2.14, p<.05). 불안·좌절 항목, 자존심 항목, 그리고 전체적인 스트레스 정도에서는 미술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와 받고 있지 않은 유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와 방과 후 수업을 하는 이유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미술 교육 여부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구 분	안 한다 (n=98)		한다 (n=120)		전 체 (n=218)		t	p
	M	SD	M	SD	M	SD		
비난·공격성	1.22	0.78	1.01	0.68	1.11	0.74	2.14*	0.033
불안·좌절	0.95	0.62	0.86	0.48	0.90	0.55	1.29	0.200
자존심	0.64	0.66	0.55	0.58	0.59	0.62	1.07	0.284
전 체	0.93	0.57	0.81	0.47	0.86	0.52	1.69	0.093

\*p<.05

2. 유아의 학원 교육의 실태와 유아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1) 유아의 학원 교육의 실태

유아들의 학원 수강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학원을 수강하는 유아가 30.0%, 학원을 수강하지 않는 유아가 70.0%로 나타났다. 유아의 연령이 많을수록(x<sup>2</sup>=29.16, p<.001), 어머니 학력이 4년제 대졸 이상인 경우(x<sup>2</sup>=8.37, p<.05),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이 많을수록(x<sup>2</sup>=10.85, p<.01) 학원에 다니는 유아가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원의 종류를 보면 음악 학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가 26.1%(N=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영, 태권도, 무용 등 체육 학원 23.0%(N=38), 미술 학원 15.2%(N=25), 영어 학원



13.3%(N=22), 속셈 학원 5.5%(N=9) 순으로 나타났다. 웅변 학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는 1.2%(N=2), 기타 15.7%(N=26)이었다. 학원 선택의 이유를 보면 집이 가까워서 현재 학원을 선택한 유아가 46.5%(N=53)로 가장 많았으며, 교사가 우수해서 22.8%(N=26), 프로그램이 좋아서 16.7%(N=19), 기타 14.0%(N=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유치원아의 학원 수강 여부

구 분	예	아니오	계	$\chi^2$ (df)	p
유아 연령	3세 (5.8)	49 (94.2)	52 (13.7)	29.16*** (2)	0.000
	4세 (23.4)	105 (76.6)	137 (36.1)		
	5세 (41.4)	112 (58.6)	191 (50.3)		
유아 성별	남 (28.2)	163 (71.8)	227 (59.7)	0.88 (1)	0.349
	여 (32.7)	103 (67.3)	153 (40.3)		
어머니 직업	있다 (23.8)	93 (76.2)	122 (32.1)	3.32 (1)	0.068
	없다 (32.9)	173 (67.1)	258 (67.9)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24.8)	112 (75.2)	149 (39.2)	8.37* (2)	0.015
	2년제 졸 (21.7)	47 (78.3)	60 (15.8)		
	4년제 대졸 이상 (37.4)	107 (62.6)	171 (45.0)		
월 평균 수입	200만원 미만 (18.4)	93 (81.6)	114 (30.0)	10.85** (2)	0.004
	200~300 만원 미만 (33.3)	102 (66.7)	153 (40.3)		
	300만원 이상 (37.2)	71 (62.8)	113 (29.7)		
	계 (30.0)	266 (70.0)	380 (100.0)		

\*p<.05, \*\*p<.01, \*\*\*p<.001

## 2) 유아의 방과 후 학원 수강 실태와 유아 스트레스와의 관계

학원 수강 여부에 따라 유아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비난·공격성(t=2.84, p<.01), 불안·좌절(t=2.77, p<.01), 자존심(t=3.22, p<.01) 항목 모두 학원 수강을 하고 있는 유아(M=1.21, M=0.96, M=0.69)가 그렇지 않은 유아(M=0.98, M=0.79, M=0.48)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는 학원 수강을 하고 있는 유아(M=95)가 그렇지 않은 유아(M=0.75)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40, p<.01). 한편 학원의 종류와 학원 선택의 이유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학원 수강여부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구 분	예 (n=114)		아니오 (n=266)		전 체 (n=380)		t	p
	M	SD	M	SD	M	SD		
비난·공격성	1.21	0.70	0.98	0.71	1.05	0.71	2.84**	0.005
불안·좌절	0.96	0.57	0.79	0.54	0.85	0.55	2.77**	0.006
자존심	0.69	0.67	0.48	0.52	0.54	0.58	3.22**	0.001
전 체	0.95	0.52	0.75	0.49	0.81	0.51	3.40**	0.001

\*\*p<.01

## 3. 유아의 학습지 교육의 실태와 유아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 1) 유아의 학습지 교육의 실태

유아의 학습지 교육 여부를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학습지를 하는 유아가 전체의 72.4%였고 연령이 많을수록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10.34$ , p<.01).

〈표 7〉 유아의 학습지 교육 여부

구 분	예	아니오	계	$\chi^2$ (df)	p
유아 연령	3세 (53.8)	24 (46.2)	52 (13.7)	10.34** (2)	0.006
	4세 (75.2)	34 (24.8)	137 (36.1)		
	5세 (75.4)	47 (24.6)	191 (50.3)		
유아 성별	남 (72.2)	63 (27.8)	227 (59.7)	0.00 (1)	0.948
	여 (72.5)	42 (27.5)	153 (40.3)		
어머니 직업	있다 (68.9)	38 (31.1)	122 (32.1)	1.11 (1)	0.292
	없다 (74.0)	67 (26.0)	258 (67.9)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73.8)	39 (26.2)	149 (39.2)	0.26 (2)	0.877
	2년제 졸 (71.7)	17 (28.3)	60 (15.8)		
	4년제 대졸 이상 (71.3)	49 (28.7)	171 (45.0)		
월 평균 수입	200만원 미만 (71.9)	32 (28.1)	114 (30.0)	0.09 (2)	0.956
	200~300 만원 미만 (73.2)	41 (26.8)	153 (40.3)		
	300만원 이상 (71.7)	32 (28.3)	113 (29.7)		
	계	275 (72.4)	105 (27.6)		

\*\*p<.01

학습지 유형을 살펴보면 <표 8>과 같이 학습지도와 방문 지도를 받고 있는 유아는 64.0%로 가장 많았다. 유아의 연령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가정에서 학습지만 받아보고 있는 유아는 많았고, 연령이 많을수록 학습지도와 방문 지도를 받고 있는 유아는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30.86$ ,  $p<.001$ ). 유아의 성별, 어머니의 직업, 어머니의 학력,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습지 구독 동기는 <표 9>와 같이 부모의 판단으로 학습지를 구독하게 된 유아는 47.6%, 유아의 요구로 17.5%, 친구·이웃에서 하는 것을 보고 15.3%, 친구, 친척, 아는 사람의 권유로 11.6%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부모의 판단으로 학습지를 구독하게 된 유아는 많았다( $\chi^2=17.04$ ,  $p<.05$ ). 유아의 성별, 어머니의 직업, 어머니의 학력,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따른 학습지 구독 동기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학습지의 유형

구 분	가정에서 학습지만 받아보고 있다	학습지와 방문 지도를 받고 있다	교재 세트 구입, 방문지도 받고 있다	학습지와 컴퓨터 통신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계	$\chi^2$ (df)	p
유아 연령	3세 (35.7)	7 (25.0)	11 (39.3)	-	28 (10.2)	30.86*** (6)	0.000
	4세 (22.3)	63 (61.2)	17 (16.5)	-	103 (37.5)		
	5세 (16.7)	106 (73.6)	12 (8.3)	2 (1.4)	144 (52.4)		
계	57 (20.7)	176 (64.0)	40 (14.5)	2 (0.7)	275 (100.0)		

\*\*\*p<.001

〈표 9〉 학습지 구독 동기

구 분	자녀의 요구로	친구, 이웃에서 하는 것을 보고	친구, 친척, 아는 사람의 권유로	부모 판단	기타	계	$\chi^2$ (df)	p
유아 연령	3세 (10.7)	3 (10.7)	3 (10.7)	12 (42.9)	7 (25.0)	28 (10.2)	17.04 <sup>*</sup> (8)	0.030
	4세 (23.3)	15 (14.6)	9 (8.7)	48 (46.6)	7 (6.8)	103 (37.5)		
	5세 (14.6)	24 (16.7)	20 (13.9)	71 (49.3)	8 (5.6)	144 (52.4)		
계	48 (17.5)	42 (15.3)	32 (11.6)	131 (47.6)	22 (8.0)	275 (100.0)		

\*p<.05

2) 유아의 학습지 이용 실태와 유아 스트레스와의 관계

학습지 구독 여부에 따라 유아들의 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비난·공격성, 불안·좌절, 자존심 관련 스트레스 정도에서 학습지를 구독하고 있는 유아와(M=1.07, M=0.86, M=0.54) 그렇지 않은 유아(M=1.00, M=0.82, M=0.53)간에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습지 유형과 구독 동기에 따른 유아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 학습지 구독 여부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구 분	예 (n=275)		아니오 (n=105)		전 체 (n=380)		t	p
	M	SD	M	SD	M	SD		
비난·공격성	1.07	0.73	1.00	0.68	1.05	0.71	0.89	0.373
불안·좌절	0.86	0.55	0.82	0.56	0.85	0.55	0.53	0.596
자존심	0.54	0.57	0.53	0.61	0.54	0.58	0.14	0.888
전 체	0.82	0.51	0.79	0.51	0.81	0.51	0.61	0.540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치원아의 방과 후 활동경험의 양상(방과 후 유치원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일반 학원 교육, 가정에서 하는 학습지 교육)을 조사·분석하여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방과 후 활동 경험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론적 근거로 탐색한 유아기 조기 교육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결과들로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이기숙, 2002)에서 유아기에 이루어지는 조기 교육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육, 개인/소집단 과외교육, 가정 학습지, 가정방문교육, 유치원의 특별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조사

하여 분석한 유아의 방과 후 교육활동을 조기 교육에 관한 연구 결과로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조기 교육의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방과 후 유치원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일반 학원 교육, 가정에서 하는 학습지 교육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분석하였으나 이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으므로 논의에서는 방과 후 교육활동 실태 전체를 유아기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방과 후 교육의 실태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것이고, 방과 후 유치원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일반 학원 교육, 가정에서 하는 학습지 교육 등의 실태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길홍묘, 2002; 김명순, 2002; 김수영, 1995; 김효선, 2001; 오효선, 2001; 이기숙, 2002; 최영란, 2001; 홍은자, 2001)가 실시되어 논의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 실태보다는 방과 후 교육의 실태와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유아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실태와 유아의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내 방과 후 교육에 참여한 유아는 참여하지 않은 유아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위 요인들 중 불안·좌절을 경험함으로써 나타나는 스트레스에서도 유치원내 방과 후 교육에의 참여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치원 방과후에 학원에서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유아와 참여하지 않은 유아의 스트레스 정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비난과 공격성 관련 스트레스, 불안과 좌절 관련 스트레스, 그리고 자존심 관련 스트레스 등 모든 하위 요인들에서도 학원 활동에 참여하는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한편 학습지 구독 여부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에서는 유치원 방과후에 학습지를 구독하고 있는 유아와 그렇지 않은 유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유아들이 유치원내 방과후 활동과 학원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하지 않는 유아보다 높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들의 개인차를 무시하거나 흥미와 관계없는 조기교육을 실시할 경우 유아들이 과중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보고한 이기숙(2002)의 연구 결과와 유치원아와 1,3학년 아동에게 지나친 학업이 주된 스트레스원이 된다고 보고한 Dickey와 Henderson(1989)의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Jessor, Van Den Vanderryn, Costa와 Turbin(1995)의 연구에서 학업 수행에 대한 지나친 요구가 청소년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원을 많이 다니는 유아는 적게 다니는 유아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홍은자(2001)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원에서의 방과 후 활동이 유아에게 스트레스를 부과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두 가지 유형에 속한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으나 방과 후 활동 이외에도 어머니의 취업 등으로 인한 다양한 스트레스원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중복하여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유치원 방과 후 활동 중 학습지를 하는 유아와 하지 않는 유아간의 스트레스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학원과 학습지를 더 많이 하는 유아는 적게 하

는 유아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정도에 따른 차이를 규명해낸 홍은자(2001)의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인 유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많은 종류의 학습지를 하고 있지 않았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학습지 활동에 할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 하에 부모와 상호작용하면서 실시하는 가정학습지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한 한유미(1992)의 제안을 통해서 논의하면 본 연구의 대상들이 부모나 다른 가족과 편안한 가운데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지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설명할 보다 정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국 본 연구 결과 유치원내 방과후 활동과 학원활동에 참여하는 유아의 스트레스 정도가 참여하지 않는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곧 이러한 활동에의 참여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정도를 높이는 여러 요인들 중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본 연구 대상이 참여하고 있는 방과 후 교육의 실체가 Burts(1990)의 연구결과에서도 제시된 바대로 발달적으로 부적절한 학습지나 기계적 학습을 강조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Elkind(1987)가 제안한 바와 같이 유아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력을 가함으로써 많은 스트레스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유치원 방과 후 교육활동의 세부적인 양상과 유아의 스트레스간의 관계에 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치원 내 방과 후 교육의 유형 중 미술 교육은 전체적인 스트레스 점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 비난·공격성에 관련된 하위 영역에서는 미술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유아의 스트레스 정도가 미술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유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력이 강하고 잘 다루고 인내심이 없는 부적응 행동들이 미술행위를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됨으로써 해결될 수 있고, 분노, 적대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미술이라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정화시킬 수 있다는 이효실(1997)의 제안이나 그림을 통하여 분명한 의사 표현과 함께 아동의 내면의 문제를 이해하여 행동상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강경희(2001)의 제안을 통해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이 참여하는 유치원내 방과 후 미술 활동이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유아들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로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미술 활동이 긍정적인 유치원내 방과 후 활동의 한 유형으로 제안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도 전체적인 유치원내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유아의 스트레스 정도가 참여하지 않는 유아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발달적 적합성에 부합되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다음으로 유치원 방과 후 학원 교육에의 참여 여부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간에는 많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원의 종류와 학원 선택 이유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유치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원에서의 활동에 참여해야만 하는 경우 유아의 발달적 적합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개개인의 성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발달수준으로 음악을 가르친다면 인간의 느낌, 감정, 정서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으로써(정민아, 2000) 현대 사회에서 유아가 겪게 되는 일상적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자질, 학습 환경, 부모의 역할, 지도량과 연습량이 적절히 배려되고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음악 활동도 스트레스 해소라는 음악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박은경, 1997)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체육 학원의 수강 여부를 볼 때도 자존심 관련 스트레스는 체육 학원을 수강하고 있는 유아가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높았으나 체육 학원 수강 여부에 따른 전체적인 스트레스 정도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을 볼 때 도 억압, 긴장, 갈등, 공포 등을 자유로운 신체 표현을 통하여 발산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발달에 적합한 체육 활동이(김명신, 2000)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유아의 방과 후 학습지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요인들과 유아의 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에 따른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기관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유치원내 방과 후 활동과 학원활동에 참여하는 유아는 참여하지 않는 유아에 비하여 높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유아는 초등학교에서의 형식적인 교육이 시작되기 전시기인 유아기에 성인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학문적 기술을 방과 후 교육을 통해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경험을 함으로써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유아에게 방과 후 교육

을 통하여 학문적 기술을 습득시키려는 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아의 성취도를 높이려는 것임을 감안할 때 방과 후 교육이 유아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성취도를 낮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단기적인 기술 습득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유아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대 사회의 변화 경향에 의하여 유아가 정규 유아교육과정 이외에 유아교육기관이나 학원 등의 기관에서의 특별 활동에 참여하여 양육되어야할 경우에 유아에게 제공되는 활동을 선택할 때는 유아의 발달적 적합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즉 유아에게 제공되는 방과 후 활동은 유아의 개인적 독특성과 연령적 적합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유아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기울여야 한다. 특히 유아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방과 후 활동 유형이 학원을 통한 교육 활동임을 감안할 때 특히 학원 선택시 담당 교사, 시간, 환경, 교수-학습 방법 등에서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방과 후 활동이 유아의 발달적 적합성에 부합하는 경우에 오히려 유아에게 가해지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유아가 즐겁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많은 양의 방과 후 특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유아들을 위하여 다양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유아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질 높은 문학 작품이나 음악·미술 등의 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이 과정에서 유아와 부모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과도한 유아기 조기 방과 후 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유아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검증된 방과 후 교육 활동의 어떤 측면이 유아의 스트레스 정도를 높이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교사 요인, 환경적 요인, 프로그램의 질, 시간, 참여하는 유아들의 수, 활동 참여시간 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유아가 받는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때 정확히 어느 조건이 어느 정도의 영향

력을 행사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다섯째, 유아들이 사회적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놀이 위주로 계획되어진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과 학문적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방과후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의 장·단기 교육적 효과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유아기 이후의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 것은 학문적 기술 습득을 강조하는 과도한 조기 방과 후 교육으로 인한 유아기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경희 (2001). 미술교육을 통한 심리 치료적 접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원광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길홍묘 (2002). 유아대상 한글 학습지의 학습내용 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나림 (1996). 또래간 인기도에 따른 스트레스 행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명순 (2002). 조기교육의 상업화; 학습지 아동 도서 및 놀이감 중심으로. 한국조기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81-104.
- 김명신 (2000). 체육 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영 (1995). 발달적으로 적절한 활동과 부적절한 활동이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 효성 카톨릭대 연구 논문집, 51, 269-290.
- 김정숙 (1999). 김대중 정부의 개혁을 진단한다. 서울: 김정숙 의원실.
- 김효선 (2001). 유치원 방과후 유아의 활동실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경 (1994). 조기 음악교육의 지도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의진 (2002). 조기교육과 발달 병리적 문제. 한국조기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27-42.
- 오효선 (2001). 취학 전 유아의 조기 교육 실태조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염현경 (1998).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기숙 (2002). 유아조기교육의 실태; 정규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조기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61-80.
- 이정은 (1992).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의

- 일상적 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정 (1996).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효실 (1997). 미술활동 프로그램이 아동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대구 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구혁 (1997). 초등학교 아동의 사교육에 관한 실태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민아 (2000). 음악 청취력 향상 프로그램이 유아의 음감·리듬감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영란 (2001). 유치원아의 방과후 과외교육 실태조사. 한국의국어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옥자 (1999). 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유미 (1992). 취학 전 아동의 조기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황논집, 11, 493-513.
- 허철 (1996). 초등학교의 과외교육 실태와 학습효과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은자 (2001). 어머니 성취압력과 학원 학습지 이용이 유아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미섭 (2000). 가정환경에 따른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차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bour, N. (1989). Issues in education : Pressure to perform! *Childhood Education*, 65(5), 305-306.
- Bredenkamp, S. (1987).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in early childhood programs serving children from birth through age 8*. Washington. D. C. : NAEYC, 1-78.
- Burts, D. C. (1991). *Achievement of kindergarten children in developmentally appropriate and developmentally inappropriate classroom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attle, WA, April 18-20). ED 342506.
- Carson, D. K. (1992). *Stress and coping as predictors of young children's develop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attle, WA, April 18-20). ED 330493.
- Collins, G. (1985, November 4). Children : Teaching too much, too soon? *The New York Times*.
- Dickey, J. P., & Henderson, P. (1989). What young children say about stress and coping in school. *Health Education*, 20(1), 14-17.
- Elkind, D. (1986). Helping parents make healthy educational choices for their children. *Educational Leadership*, 44, 36-38.
- Elkind, D. (1987). *Miseducation : Preschoolers at risk*. NY : Knopf.
- Eskilson, A., Wiley, M. G., Muehlbauer, G., & Dodder, L. (1986). Parental pressure, self-esteem and adolescent reported deviance : Bending the twig too far. *Adolescence*, 21(83), 501-515.
- Garnezy, N. (1988). Stressors of childhood. In N. Garnezy & M. Rutter (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Baltimore, Md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Ginsburg, G. S., & Bronstein, P. (1993). Family factors related to children's intrinsic/extrinsic motivational orient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4, 1461-1474.
- Hale, J. A. (1998). *Healing art : Youngchildren coping with stres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labama Association of Young Children. (Birmingham, AL, January 30-31).
- Hills, T. W. (1987). Hothousing young children : Implications for early childhood policy and



- practice. ED 294653.
- Jessor, R., Van Den Bos, J., Vanderryn, J., Costa, F. M., & Turbin, M. S. (1995).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 Moderator effects and developmental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31(6), 923-933.
- Katz, L. G. (1987). Early education : What should young children be doing? ED 279407.
- Metcalf, K., & Gaier, E. L. (1987). Patterns of middleclass parenting and adolescent underachievement. *Adolescence*, 22(88), 919-929.
- Minuchin, P. (1987). Schools, families, and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 245-254.
- Nurss, J. R. (1987). Readiness for Kindergarten. ERIC Digest. ED 291514.
- Sanrock, J. W. (1988). *Children*. Dubuque, IA : Wm. C. Brown.
- Seley, H. (1976). *The stress of life* (rev. ed.). NY : McGraw Hill.
- Seligman, M. E. P. (1990). *Learned optimism : How to change your mind and life*. NY : Simon and Schuster.
- Sigel, I. E. (1987). Does hotheadedness rob children of their childhoo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 211-255.
- Stanford, B. H., & Yamamoto, K. (2001). Children and Stress : Understanding and helping. ED 458001.
- WuDunn, S. (1996, January 23). In Japan, even toddlers feel the pressure to excel. *The New York Times*, p. A3.